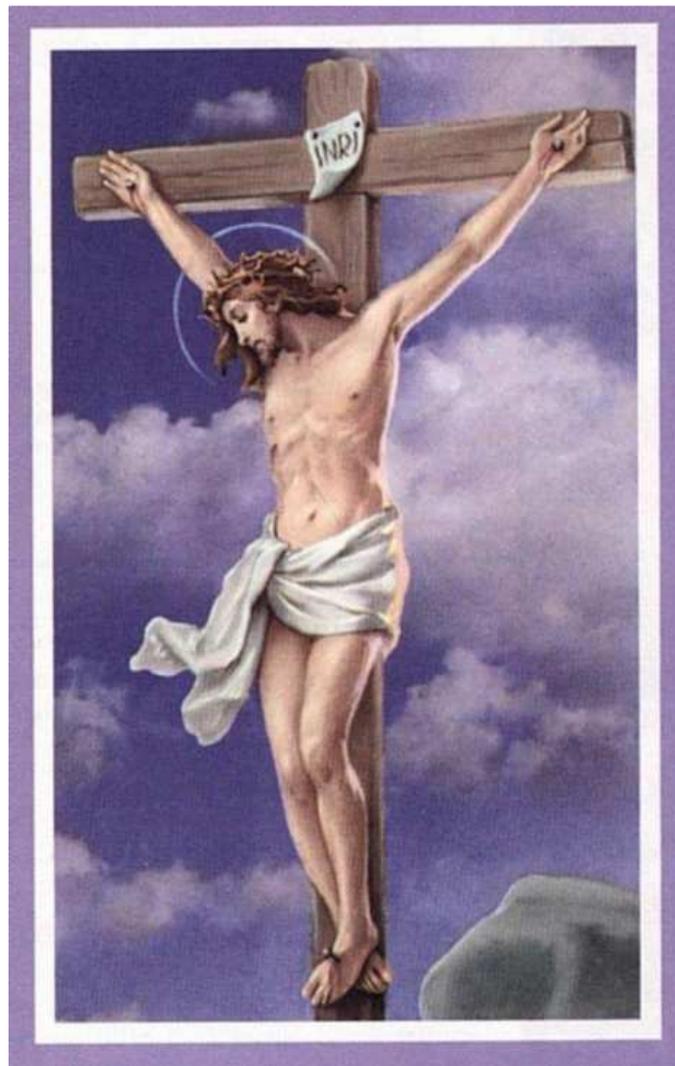


## 2012 9.16 연중 제 24 주일

제 1 독서 : 이사야 50-5-L <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들을 돌렸다.>

제 2 독서 : 야고보서 2,14-18 <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복 음 : 마르코 8,27-35 <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실 것입니다.>



베이커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차** 동업 신부님의 강론 씨디를 들어보면 신부님께서 직접 체험하셨던 이야기가 종종 등장 합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일상 생활중에 그런 체험들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오늘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평소에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스스로 반문해 보셨는지요? 혹시 그런 질문조차  
않으면서 무덤덤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평소에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라고 신앙고백을 하며, 늘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며 살아야 할것입니다. 지난목요일 미사후에 곧 이어 성체현시가 있었습니다. 매년  
교리공부를 시작 하면서 미사를 봉헌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영어권그룹이 목요일에 미사를 함께  
하게 되었고, 제가 특별히 교리교사들에게 성체현시에 꼭 함께 참여하라고 미리 부탁을  
하였는데도, 미사가 끝나자마자 성당밖으로 나가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간곡히 성시간에  
함께 참여하라고 그들을 불렀음에도 성체를 등지며 나가는 그들을 보며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체현시는 교황님이 이자리에 계신 것보다도 의미가 더욱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체는 예수님의 현존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이런일은 일어날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윤리도덕이 너무 해이해져있는 것 같습니다. 플레이보이 잡지를 만든 사람은, 이년마다  
같이사는 여자를 바꾸면서 살아가고 있고, 할리우드의 많은 배우들 역시 이혼을 밥먹듯이  
하면서도 메스콤을 타며 합법적으로 버젓이 잘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탈리아에서 클래식을  
하던 유명한 오페라가수는 자기의 비서와 스캔들을 일으키는 바람에, 그의 음악적인 삶은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과연 우리는 베드로와같이 **인간적인 뜻을 앞세우며 살고 있는지 ?  
아니면, 하느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가며 살고 있는지?** 반성해 보십시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많은 유혹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유혹과 싸워 이겨 나가야 하며, 내가 죄를 짓게 되면 나를  
단죄하고 어둠속에 있는 나를 올바른 모습으로 다시금 추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위를 보면 교회 내에서도 자기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우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또 그 계승자들을 통해서 2000 년동안이나 내려온 교회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자기에게 맞는  
신앙방식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결코 쉽고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진정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주고, 그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안겨 줄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 고 꾸짖으십니다. 차동엽신부님의 말씀과 같이, 여기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하신것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의 잘못된 생각, 행동을 두고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인간적인 것만을 주장하고, 고집할때에 이러한 꾸짖음을 들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또한,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 뒤를 따르라고 하시는데, 때로는 교회를 앞장서서 가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교회의 방식을 비난하고 자기들의 주장이 옳음을 강변하는 사람들을 교회내에서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서는 교회의 방식을 따르고 하느님의 뜻을 우선으로 삼을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을 따를 때에, 우리의 어려움과 그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겪게되는 상처들은 모두 치유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역시 사제의 삶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신자들은 사제 한 사람을 상대로 하지만 저는 수천명을 상대하면서 많은 일을 겪게 되지만 저는 제가 당하는 상처들을 일주일 이상 마음에 품지를 않습니다. 물론 기억에는 남아 있지만 그일로 제가 마음 괴로와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않으면 사제의 삶을 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 나의 방법까지도 예수님께로 겸손하게 내려놓으실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죄와 상처로 물든 우리의 마음을 은총의 물로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맡겼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50,5-9 ㄴ

5 주 하느님께서 내 귀를 열어 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6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7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8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께서 가까이 계시는데, 누가 나에게 대적하려는가? 우리 함께 나서 보자. 누가 나의 소송 상대인가? 내게 다가와 보아라.

9 보라,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나를 단죄하는 자 누구인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2,14-18

14 나의 형제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15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없는데, 16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은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이 녹이고 배불리 먹으시오.” 하고 말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7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18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대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실천이 있소.” 나에게 실천 없는 그대의 믿음을 보여 주십시오. 나는 실천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 주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실 것이다.>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8,27-35

그때에 27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카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28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29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30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31 예수님께서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32 예수님께서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33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34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35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